

## 2000년대 북한 교육 정책과 현실의 변화

### 조 정 아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의 영향으로 교육 인프라 파괴와 수업 운영의 파행, 교권 하락 등의 교육 문제를 겪었던 북한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천년 북한 교육 부문에 제기된 과제는 십년 가까이 진행된 교육의 담보와 후퇴의 상황을 되돌리고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국가발전의 발판을 마련해나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2000년대 북한 교육에는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라는 구호로 집약되는 정책 기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 정책의 변화는 경제난 심화와 시장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계층분화라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교육 부문에서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특정한 양상을 출현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 교육의 변화 양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공교육 약화와 교육의 사적 영역 확대, 둘째, 발전교육론 부상과 '수재교육' 전면화, 셋째, 교육의 '현대화'를 통한 질적 제고 노력과 비리의 확대이다.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가 학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고난의 행군기'를 경유한 후에 공교육의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곧바로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교과서, 교복, 학용품 등 공부를 하기 위해 학생 개인이 소모하는 비용으로부터 학교의 책걸상과 시설의 개보수, 교육 기자재 확보 등과 같은 시설유지관리비용에 이르기까지, 경제난 이전 시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였던 공교육비의 상당 부분을 지금은 학부모가 떠안게 되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들어 시장의 확대, 경제적 계층분화, 교사의 생활수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인해 사교육의 확산이라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사부담 공교육비의 증가와 함께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라는 일종의 발전교육론이 경제난 타개와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 부문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첫째, 과학기술교육, 특히 IT분야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둘째,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의 발굴과 양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시행하고, 셋째,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의미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과 컴퓨터 부문에서 재능있는 인재를 조기에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수재교육 강화가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의 기본 전략으로 선택되었다. 컴퓨터수재 양성을 위한 조기교육체계 구축, 대학 교육연한 단축과 수재반 설치, 대학과 박사원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속성교육과정 설치 등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에 중등수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를 200여개 이상 설립하고 중등교육체계를 평양제1중학교, 도

제1중학교, 시·군·구역제1중학교, 일반중학교 순의 서열화된 구조로 구성함으로써 모든 중등학생들을 능력별로 세분화하여 선발하고 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유능한 교사나 교육기자재와 같은 교육 자원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의 기회도 수재학교에 집중적으로 배분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 투자의 불균형과 평등주의적 교육정책의 실질적 폐기, 교육에서 사적 영역의 확대는 그동안 효과적으로 지속되어온 무상교육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반감시키고 수재교육기관이 아닌 일반학교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교육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여 '실리'를 거두기 위해 교육 방법 및 시험 방법 개선과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기자재 활용, 대학 교육과정 조정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교육적 과제의 해결은 입시비리와 시험부정 등의 사회적 관행의 확대에 의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입시비리와 성적거래가 만연하는 북한의 대학 실태 속에서 배출된 졸업생의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북한 교육의 변화는 과학기술 분야의 수재양성을 통하여 '단번도약'을 이루려는 강한 정책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 난국 타개를 위해 인적자원 이외의 별다른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 부문의 유일한 전략일 수도 있다. 이 전략은 한편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의 불균등한 발전이 가져올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